괴산군 仙遊洞의 傳說的·仙趣的 인물 李寧의 가계와 생애

이상주*

1. 머리말
2. 李寧의 가계와 생애
3. 李寧이 교유한 人士들의 性向
4. 맺음말

참고문헌

1. 머리말

괴산군 청천면 소재의 선유동은 이름 그대로 신선이 노니는 동네다. 그런데 선유동에는 실제 神仙的인 인물이 있었다. 그 이름은 李寧(중종9년 1514년 ~선조3년 1570년 이후 어느 시기)이다. 그는 仙遊洞에 仙遊八景을 설정하고 그곳에서 신선처럼 살았다. 선유동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仙趣的 운치를 더 해주고 있다. 이렇듯 선유동은 신선이 살만큼 산수가 수려한 곳으로 꼽혔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그의 존재에 대해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자료구득의 어려움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최근 몇 년 전부터 '忠北의 九曲文化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작업을 지속해왔다. 즉 九曲을 중심으로하여 九曲과 관련된 인물과 漢詩 중에 주로 연구되지않은 자료를 색출하여 연구했다. 선유동도 그 대상중의 하나였기때문에 선유동에 관한 자료를 광범하게 탐색해왔다. 그러던중, 최근 나는 傳說的이며 神仙的인 隱者 李寧에 대한 획기적인 자료를 만나게 되었다. 바로 李萬憲(1608~?)의 문집인『小山公文集』[1]이다. 이 책에 언급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나는 그에 대한 적잖은 자료를 색출하였다. 이제 이 자료들을 통해서 선유동의 산수미만큼이나 이채로운 이녕의 면모를 살펴보자.

2. 이녕의 가계와 생애

현재까지 이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이번에 새로 색출한 자료를 통해 이녕의 가계와 생애를 비교적 소상히 알 수 있게 됐다. 李萬憲의『小山公文集』「七松居士傳」에

---

* 청주대·충북대·배재대 강사.

1) 李萬憲,『小山公文集』, 編輯者 李芯榮, 1922년 간행. 1922년에 간행된『慶州李氏派譜』를 통해 李萬憲의 가계와 생애를 개괄한다. 字는 伯式이요, 號는 小山, 다른 號는 尙友堂이다. 成均館 司馬試에 합격했으며, 文章德業으로 일세에 명성이 들렸다. 서울의 士大夫가 추천하여 특별히 洗馬에 제수되었으나, 벼슬하지 않았으며, 山丈에 추천했으나, 사양했으며, 兌書를 했다. 문집이 세상에 유행한다. 묘소는 지금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화리 교동에 있다. 다음은 1922년에 간행한 『慶州李氏派譜』를 통해본 경주이씨 시조인 謁平公으로 부터 水落洞西溪公派의 가계도이다. 謁平公으로 부터 23세 公麟→ 24세 제8남 鯤→ 25세 제4남 李潛→ 26세 李得胤→ 李弘有(萬曆戊子1588~顯廟辛亥1671 84세)→ 李萬憲→ 震伯(崇禎1640~英廟丁巳 1737년 88세에 졸함)이다.『慶州李氏派譜』와『小山公文集』 所載 「小山公行狀」에 생졸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만헌의 아버지 李弘有의 문집 『遯軒先生文集』所載 이홍유의 연보에, "戊申年(1608년)에 長子 萬憲을 낳았다.(戊申 長子萬憲生)"이라는 단편적인 기록이 있어 그의 출생년을 알 수 있을 뿐, 졸년은 알 수가 없다.

“頤菴 宋寅이 傳을 지어 그 平生을 서술하고, 五言六篇을 덧붙였다.”[2]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傳이란 바로「贈七松居士幷序」를 일컫는다. 宋寅이 5언절구 5수를 지어주면서, 그 앞에 傳의 형식을 갖춘 序文을 붙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만헌은 왜 이런 사실들을 기술한 것일까?

대략 翁과 서로 떨어진 것이 거의 70년인데, 그 거사의 遺址를 찾으니, 그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없고, 다만 흐르는 물과 푸른 산, 새가 우는 소리와 꽃이 지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아! 翁의 청아한 기풍과 고고한 절의로 중국에 태어나서, 漢・唐 때 호사하는 시절에 놓이게 됐다면, 즉 사람들에게 일컬어지고 기려져서 염모하는 것이 더욱 오래가고 더욱 새로워져, 商嶺[3]・王官[4]보다 못하지 않을 텐데, 한 사람이 그것을 野乘에 게재하여 高人逸士의 指南에 도움이 되게하지 못했으니, 탄식을 이길 수 있겠는가? [5]

위에서 보았듯이, 이만헌이 이런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이넝의 청아한 기풍과 고고한 절의가 高人逸士의 指南에 도움을 줄 수 있기때문에 그 모범적 삶을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그의 투철한 전승의식과 기록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제 宋寅(1516～1584)의「贈七松居士幷序」를 통해 그의 생애와 품자에 대해 살펴보자.

거사는 李氏가 姓이며, 이름은 顥이요, 자는 頴之라. 본관은 慶州(鷄林)로 번성한 씨족이며, 벼슬[6]이 계속 이어졌다[7]. 그 선조는 호남의 보성군[8]에 여러 세대를 살았는데, 그 후에 청주로 이사하여 또한 여러 대가 되었다. 거사는 어려서 부모를 잃어서 의지할 데가 없었다. 점차 성장하며 학문에 뜻을 두어 과거공부[9]를 익혔으나 이루지 못했다. 이에 산수의 명승을 찾는데 뜻을 두어 우리나라를 두루 다니고, 高僧을 종유하는 것을 좋아하고 절경에서 살았다. 만년에 淸州의 淸川縣[10]東쪽 三十里 葩串山[11]의 仙遊洞[12]에 집을 결성했는데, 집 주위에 일곱개의 큰 소나무가 둘러싸고 있어 그곳을 七松이라 지목했다. 항상 누런 소를 타고 산림간을 왕래하며 그 흥을 따라갔다. 그래서 또한 騎牛子라 號를 삼았다. 거사는 正德 갑술년(1514년 중종9년)에 출생했으니, 금년 50하고도 또 6세이나 아들이 없어 매번 운명이라 믿으라고 아내을 회유하니, 아내도 또한 편안해했다. 대개 소탈한 옷(裘葛)을 입고 죽을 먹었는데, 오히려 혹 그것을 잇지 못하였으나, 일찍이 마음에 두지 않아 추위와 더위도 또한 침범하지 못했다. 밭갈이하고 채소밭을 매어 가꾸는 것 이외

---

2) 李萬憲, 『小山公文集』下 7장, 「七松居士傳」. 宋頤菴寅, 爲作傳, 叙其平生, 副以五言六篇. 五言六篇을 덧붙였다고 했는데, 지금 전하는 송인의 「贈七松居士幷序」에는 5편만 실려있다.
3) 商嶺: 商山을 가리킴. 지금 중국 陝西省 商縣 동남쪽. 秦나라 말년에 東園公・夏黃公・甪里先生・綺里季 네 사람이 난을 피해 은거하던 곳. 모두 80여세를 살았으며 눈썹이 하야서 ‘商山四皓’라 일컬었음. 이들을 가리킴.
4) 王官: 唐나라 司空圖. 난을 피해 中條山 王官谷에 살면서 休休亭을 지었다. 商嶺과 王官은 은둔한다는 뜻으로 쓰임.
5) 李萬憲, 위의 글. 約, 與翁相去, 幾七十年, 求其居士之遺址, 而未能得其彷佛者, 但見流水靑山鳥啼花落而已. 噫! 以翁之淸風高節, 生於中國, 而値漢唐好事之時, 則人之稱譽, 而豔慕, 愈久而愈新, 不下於商嶺王官, 而無一人載諸野乘, 以資高人逸士之指南, 可勝歎哉.
6)簪笏: 벼슬아치들이 冠에 꽂는 동곳(비녀)과 손에 쥐는 홀. 轉意되어 예복을 입은 벼슬아치.
7) 蟬聯: 연이어 계속됨.
8) 보성: 지금의 전남 보성군.
9) 擧子業: 擧子는 과거를 보는 선비.
10) 지금 충북 괴산군 靑川面임. 靑川을 淸川으로 글자를 잘못 썼음.
11) 청천에서 삼십리라고 한 것을 보면 지금의 화양동 파곶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당시에는 지금의 화양동을 포함해서 선유동 일대를 파곶산이라 한 듯함.
12) 지금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4리 선유동.

에 고기잡고 약초캐는 여가에 혹 시를 읊조리고 혹 노래를 부르니, 오직 시내바람과 산 달을 知音으로 삼았다. 13)

이넝의 선조는 지금의 전남 보성에서 누대를 살다가 지금의 청주로 이사와서 또 누대를 살았다. 그는 조실부모했으며, 학문에 뜻을 두어 과거공부를 했으나 실패했한 인물이다. 이래서 산수명승을 즐기며 高僧을 종유했다. 그러다 만년에 선유동에 터를 잡고 살았다. 그는 후사가 없었으며, 이를 번민하는 아내를 운명이라 믿으라하며 회유했다. 채소를 가꾸고 고기잡으며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시를 읊조리고 시내바람(溪風)과 산달(山月)을 知音으로 삼은 것이다. 즉 산수자연을 벗하며 초속적인 삶을 영위했다.

이제까지 색출한 자료들을 통해 먼저 이넝의 姓名과 字號에 대해 알아보자. 위의 宋寅(1516~1584)의『頤庵集』에는 성명은 李穎, 자는 領之이며 본관은 慶州(鷄林)로 기록했다.李萬憲(1608~?)의 『小山公文集』에는 “ 李寧은 字가 寧之요, 본관이 慶州인 사람이다.14) ”라 했다. 이 두 편의 글을 종합해보면 이넝은 本貫이 慶州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姓名과 字의 漢字는 서로 다르다. 李楨(1512~1571)의 「送李寧」15)이라는 시에 성명을 李寧으로, 朴枝華(1513~1592)는 「將入東海, 李領之偶然訪宿, 書以贈別 五首」16)라는 시에 字를 領之로 기록했다. 柳成龍의「終天永慕錄」17)에 李領이라 표기했다.『慶州李氏尙書公世譜』18)에 성명을 李寧으로 표기했다. 宋寅(1516~1584)과 朴枝華(1513~1592)는 거의 동시대에 생존했으며 교분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한자를 달리 표기했다. 옛 사람들이 인명을 漢字로 표기할 때, 기록자에 따라 漢字를 달리 표기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조선후기 가객 金聖基도 金聖期로, 조선후기 12대 歌詞 春眠曲의 작자도 족보엔 李羲徵으로 李夏坤의『頭陀草』「南遊錄」엔 李喜徵으로 기록되어있다.

이넝의 경우, 족보의 기록과 빈도수, 그리고 연대의 선후로 보아 성명은 漢字를 李寧으로 하고 字는 빈도수로 보아 領之를 표준으로 하고자한다. 참고로 ( )에 李穎, 寧之를 써넣어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姓名은 李寧(穎), 字는 領之(寧之)로 표기하고자 한다. 송인의 앞의 글을 보면, 그는 항상 누런 소를 타고 산림간을 왕래하며 그 흥을 따라갔다. 그래서 또한 騎牛子라 호를 삼았다. 또 벗나무관을 쓰고 다녀 樺冠翁이라고도 불렀다. 또한 집 주위에 일곱개의 큰 소나무가 둘러싸고 있어 七松居士라고도 했다. 성운은 이넝이 선유동에 살아서 仙遊居士19) 로 칭했다.

---

13) 宋寅,『頤庵集』,「贈七松居士幷序」한국문집총간 36책, 卷二 99쪽. 居士李姓, 名穎, 字領之. 本鷄林茂族, 簪笏蟬聯. 其先世居湖南之寶城郡, 後移于淸州, 亦累代矣. 居士幼喪父母, 無所依歸. 稍長志學, 習擧子業, 不遂. 乃放意尋山水之勝, 遍歷東土, 喜從高僧, 棲息絶境. 晩結廬于淸州淸川縣東三十里葩串山之仙遊洞, 繞屋有七大松, 以七松目之. 常騎黃犢, 往來林野間, 以適其興. 故亦號爲騎牛子. 居士生于正德甲戌, 今年五十有六而無子, 每以信命諭其妻, 妻亦安矣. 蓋裘羯(羯은 葛을 잘못 썼거나 通하는 字로 쓴듯. 겨울과 여름옷 轉意되어 소박한 옷-인용자 주)饘粥, 猶或不繼, 而未嘗經于懷, 而寒暑亦不能侵也. 耕田鋤圃之外, 釣魚採藥之餘, 或吟詩, 或放歌, 唯以溪風山月爲知音.

14) 李萬憲, 앞의 글 李寧, 字寧之, 慶州人也.

15) 李楨,『龜巖先生文集・續集』, 卷一 26장 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送李寧」

16) 朴枝華,『守庵遺稿』, 한국문집총간 34책, 민족문화추진회, 123쪽.「將入東海, 李領之偶然訪宿, 書以贈別 五首」.

17) 柳成龍,「終天永慕錄」, 『古文書集成』 十八, 河回豊山柳氏篇, 4,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4. 80쪽. 「己巳三月 初九日, 還鄕寒食拜掃先塋」. 仙遊洞泉石絶勝. 山中有居士李領居之, 自號七松居士.

柳成龍,「終天永慕錄」, 『古文書集成』 十八, 河回豊山柳氏篇, 4,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4. 80쪽. 「己巳三月 初九日, 還鄕寒食拜掃先塋」. 州東面淸川縣, 有葩串寺. 仙遊洞泉石絶勝. 山中有居士李領居之, 自號七松居士. 成大谷運及退溪先生皆有贈詩. 公時行遊葩串寺仙遊洞, 次退溪韻, 以贈領.

18) 『慶州李氏尙書公世譜』, 1999년.

19) 成運,『大谷集』, 한국문집총간 28책, 19쪽,「遊仙居士索詩題荒句以塞其勤」.

李寧(穎)이 호를 七松居士라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답습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 唐나라 때 鄭薰이 號를 七松處士라 했다. 鄕里와 世系는 알 수 없다. 懿宗時에 吏部侍郎등을 역임하고, 左丞에 승진했다. 성품이 우애심이 많아 많은 친척들을 모아 베풀었는데, 불충분하며 외부로부터 구해다 주기도 했다. 薰은 단정하고 강직했다. 가난하지만 재주와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을 끌어 모아 士類들이 많아 모여들었다. 노년에 사는 곳을 호로 삼아 隱巖이라 했는데, 정원에 일곱 그루의 소나무를 심어 그로 인해 七松處士를 호로 삼았다. [20] 이녕은 벼슬은 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鄭薰의 기품과 생활방식을 숭모하고 동경하여 자신도 그런 삶을 구현하려 했던 것이리라.

그의 출생년도와 졸년에 대해 알아보자. 宋寅의 윗글의 기록에, " 거사는 正德 갑술년(1514년 중종9년)에 출생했으며 금년 50하고도 또 6세이나 …"라고 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환산해보면, 이글은 宋寅이 1569년에 쓴 글이다. 또한 이만헌의 글에 "庚午間(1570년)에 丹陽과 淸風 兩郡의 山水에 놀러갔다가,… [21]" 라 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이녕은 1514년에 출생하여 1570년 이후에 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단서를 토대로 경주이씨족보를 열람하던중『慶州李氏尙書公世譜』에서 李寧과 같은 漢字를 쓰는 이름을 보게 되었다. 이만헌은 이녕의 先代系派에 대해 "옹은 月城 李氏로 몇 대에 어느 派인지 자세치 않으나, 나와 실로 같은 本貫에서 나왔다."[22]라고 했다. 그러나 위의 世譜가 아주 사실무근한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참고삼아 제시한다.

경주이씨 시조인 謁平公. 居明 → 2세 金現→ 3세 金書→ 4세 潤弘→ 5세 承訓→ 6세 周復→ 7세 俔→ 8세 侈連→ 9세 寵暹→ 10세 春貞→ 11세 玄福→ 12세 宣用→ 13세 升高→ 14세 得堅→ 15세 翮(尙書公)→ 16세 世基→ 17세 適→ 18세 元普→ 19세 昇→ 20세 延孫→ 21세 石堅→ 22세 孝長→

23세 ①장남 希賢

23세 ②차남 希聖→ 24세 ①장남 完

②차남 宏

③삼남 寧→ 25세 相→ 26세 鶴 →27세 演世→ 28세 仁錫→ 29세 永秀→ 30세 喆→ 31세 公信[23]

23세 ③삼남 希良

23세 ④사남 希俊→ 24세 ①장남 宇

24세 ②차남 宙(中宗 癸未1523년생～宣祖 戊戌1598년졸)→ 25세 廷忠(明宗 庚戌1550년생～ 宣祖 丁酉1597년졸)

이 계보를 보면 李寧이란 이름의 한자가 동일하다. 다음으로 송인의 글을 통해 확인한 이녕의 출생연대와, 이 족보에 등재된 이녕의 출생연대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위의 기록에 의하면 22세 孝長의 四男 希俊의 次男 宙의 생졸년이 (中宗 癸未1523년생～宣祖 戊戌1598년졸)이다. 22세 孝長의 차남 希聖의 三男인 李寧의 출생년이, 위에서 살펴본 宋寅의「贈七松居士幷序」에 正德 갑술년(1514년 중종9년)으로 기록돼있어, 나이의 선후 관계로 보아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녕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인물인지 앞에서 총체적인 면을 보았다. 이제 이만헌의 기록을 통

---

20) 『唐書』 177권.

21) 이만헌, 앞의 글. 庚午間, 往遊丹淸兩郡山水,

22) 이만헌, 앞의글. 翁是月城之李, 未詳派於何代, 而於余實同自出也.

23) 公信이후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족보에 보이지 않음. 대개 족보 편찬시 게재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렇게 되는 것이 상례이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상서공파 후손 李碩雨에 의하면, 公信이 들어가 있는 자리에, 조선 영조때 간행된 戊申譜(1728년 간행)에는 順海가 들어 있으며 公信은 그 다음 대에 들어있다한다.

해 다시 확인해보자.

성품이 조용하고 담박하며 온자하여, 자기 분수에 편안하게 여기어 詩文이외에 마음두는 것이 없으며, 종이를 뚫어 먹물을 쓰는 功에 집착하지는 않았으나, 興이 일어 경치를 마주대하게 되면 문득 붓과 종이 사이에 드러내니 蕭散하고 灑落하고 화목한 것이 그 사람과 같았다. 항상 한 마리의 누런 황소를 타고 어린 동자에게 술통을 실으라고 명하여 그 뒤를 쫓아 한 줄기 물가 하나의 돌이 좀 맑고 그늘진 곳에 반드시 휘파람불고 읊조리다, 마침내 저녁이 되어 술이 떨어지고 흥이 다하면 돌아왔다.[24]

이넝은 성품이 조용하고 담박하며, 온자하여 자기 분수를 편안하게 여겼다. 시문에 자신의 감회를 토로하니 그 시문에 소산하고 외락하고 화목한 것이 드러나있었다. 누런 황소를 타고 산수가 수려한 곳을 찾아 술과 자연미를 즐겼다.
이제 이넝의 仙趣的 삶의 실상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시문을 통해 살펴보자. 成運의「遊仙居士索詩題荒句以塞其勤」4수중 제 2수이다.

古貌驚人氣吐虹, 古雅한 모습은 사람을 놀라게 하며 기개는 무지개를 토하고,
樺冠[25]高戴似仙翁. 樺冠을 높이 쓰고 있으니 신선같네.
出山尋我翩如鶴, 산을 나와 나를 찾으니 학이 나는 듯한데,
滿袖猶啣溪壑風. 소매 가득히 오히려 계곡의 바람이 스며드네.

이넝의 고풍이 사람을 놀라게하고 그 기개가 무지개를 토해내는 듯하다고 했다. 자작껍질로 만든 관을 쓰고있는 모습이 신선을 연상케 한단다. 제 3구에서 “학이 나는 듯하다”고 이넝의 자태를 비유했다. 제2구에서 신선같다고 했는데, 고래로부터 학은 신선의 화신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넝의 고아한 풍채를 신선같다고 재 강조한 것이다. 다음은 成運의 같은 시 제 2수이다.

華陽洞裏昔探春, 華陽洞안에서 전에 봄을 즐길 때,
似入天台[26]訪玉眞[27]. 天台山에 들어가 玉眞을 찾는 것 같았네.
憑問山靈能記憶, 산신령에게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봐야하겠네,
白頭未死舊遊人. 흰머리에도 아직 죽지 않고 전에 놀던 사람을.

이넝은 七松亭八景 이른바 仙遊洞八景을 설정하고 왕래하며 유유자적했다. 그중의 하나가 華陽賞春이다. 화양동에서 봄을 완상하는 모습에서 그의 仙趣的 모습은 여실히 드러난다. 成運은 제3구 제4구에서 이넝이 이미 신선같은 경지에 도달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朴枝華의 詩「將入東海, 李頷之偶然訪宿, 書以贈別 五首」중 제1수이다.

宿昔遊仙洞, 그전부터 선유동에 살면서,
揮手謝塵霧. 손 내저어 티끌안개 사양했네.

---

24) 李萬憲, 위의 글, 性恬澹蘊藉, 安於素履, 而無慕乎外於詩文, 不着鑽紙數墨之功, 而遇興觸境, 輒形於毫楮間, 蕭散落穆如其人. 常乘一金犢, 命小僮挈酒榼, 而踵後, 一水一石秒淸陰處, 必嘯詠, 竟夕, 酒罄興闌而還.
25) 樺冠: 자작나무껍질로 만든 관.
26) 天台: 天台山. 중국 折江省 天台縣北, 仙霞嶺脈의 동쪽 지류. 漢 때 劉晨 阮肇가 천태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다가 두 여인(仙女)을 만났다는 고사가 있다. 『太平廣記』
27) 玉眞: 仙人.『眞靈位業圖』 玉眞保皇道君, 居玉淸三元宮.

可愛主人翁, 주인노인을 좋아하노니,
知余素心[28]喩. 나에게 素心을 깨우쳐주는 걸 알기 때문이라네.
濯足扶桑[29]石, 扶桑石에서 발을 씻으며,
猶記七松聚. 오히려 칠송정마을에 대해 기록하네.

지금 박지화는 동해바다로 유람가려고 한다. 동해바다의 경관이 장관임은 지금도 우리가 공인하는 바이다. 海金剛・叢石亭이라든지 일일이 예거할 수 없을 만큼 수려한 자연미를 자랑한다. 오죽하면 鄭澈이 關東八景을 유람하고「關東別曲」을 지었겠는가. 그외 한다는 명사들은 금강산을 비롯한 동해바다가의 풍광을 노래했다. 여기서 박지화는 동해 바다가에 가있으면서 이녕이 살고 있는 선유동을 말하고있다. 그가 선유동을 예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제1구에서 보듯이 선유동은 속세의 더러운 티끌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이녕을 박지화는 좋아한다고 실토한다. 그 이유는 이녕이 자기에게 素心을 중요성을 깨우쳐준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지화는 '扶桑石에서 발을 씻으면서도 오히려 칠송정마을에 대해 기록한다.' 고 한 것이다. 扶桑石이란 무엇인가. 동해바다에 있는 신선이 사는 곳이 아니던가. 동해바다의 자연경관의 장엄함과 수려함이 그 규모에 있어서 선유동에 비길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박지화는 그곳에서 선유동을 찬미하고 있다. 그는 알고 있다. 산은 높다고 좋은게 아니다, 신선이 있으면 유명하다는 것을(山不在高, 有仙則名).[30] 산수와 인간의 조화로운 명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박지화의 같은 시 제5수이다.

昔日仙人洞, 옛날 仙人이 살던 동네,
今爲居士宅. 지금 居士의 집이 되었네.
碧溪浸霜月[31], 푸른 시냇물에 서릿달이 스며들고,
巖間聞鶴夕. 바위사이에서 저녁에 학 우는 소리 들리네.
今從桃源歸, 지금 桃源따라 돌아가서,
相期共酬酌. 서로 함께 술잔 주고 받길 기약해보네.

선유동은 이름그대로 신선이 살던 동네이다. 그런데 지금 이곳이 이녕의 집이 되었다. 이녕이 신선이 사는 집에 살고 있으니 이녕이 신선이 되었다는 말이다. 제 3구를 보라. 선경이 바로 이런 곳이다. 녹수가 흐르는 가을밤에 그윽한 달빛을 상상해보라. 달은 가을 달을 최고로 아름답다고 여겼다. 암벽사이에서 어스름 달밤에 학 우는 소리 들린다. 학은 신선의 화신이다. 역시 신선이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재 강조한 것이다. 박지화는 桃源을 따라 돌아가서서 대작하기를 기약하고 있다. 여기서 桃源은 실존의 지명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 桃源里가 실존하기도 한다. 한편 인간세상에 존재한다고는 하나 인간이 찾을 수 없는 상상적인 신선의 세계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桃源은 別天地를 지칭하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지금 두 사람은 초속적인 세계에서 술잔을 대작할 기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신선을 상상해보는 것이다. 이녕이 신선이니 그 친구 박지화도 신선이 되는 것이다. 신선끼리의 만남을 모색하는 이들은 진정 인간신선이리라. 聖人의 눈에 聖人이 보이는 법이다. 남을 높여주고 예우해주면 자신도 절로 동격이 되어 자신의 인품도 절로 격상하는 법이다.
다음은 송인의「贈七松居士幷序」이다. 5수의 시가 있다. 각 수의 시에서 세인의 평에 반대되는 해석을 했다. 즉 역설적으로 이녕을 예찬하고 있다. 1수에서 貧과 富 제 2수에서는 勞와 逸 제3수

28) 素心: 소박하고 거짓없는 마음.
29) 扶桑: 동쪽 바다 해뜨는 곳에 있다는 나무.
30) 신선이 있으면 유명하다는 것을(山不在高, 有仙則名) : 唐나라 劉禹錫, 「陋室銘」.
31) 霜月: 서리 나리는 밤의 달.

에서는 苦와 樂 제4수에서는 悁과 勤 제5수에서는 老와 少를 대비하여 이녕을 찬양했다. 제1수를 보기로 하자

人言居士貧, 사람들은 거사가 가난하다 말하네만,
我謂居士富. 나는 거사가 부자라 일컫네.
心無不足時, 마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때가 없었으며,
短褐[32]晒紋繡. 짤막한 삼베옷 입고서 무늬새기고 수놓은 옷 비웃네.

세상사람들이 이녕을 가난하다고 평했다. 물질적 기준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송인은 그를 부자라고 말한다. 이녕은 시기를 잘 알고 물러나 속세의 부귀를 초월하여 검소하게 살 수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하더라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진정 부자라는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물질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가치도 중요한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안정에 만족하면서 탐욕부리지 않고 청렴결백하게 고고하게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참 가치있는 삶이라는 점을 강조한 평이다. 나머지 4수에 대해서는 原詩는 소개하고 논의는 생략한다.[33]

3. 이녕이 교유한 인사들의 성향

이녕의 교유관계와 세인들이 관심도를 인물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녕에 대한 송인의 기록을 살펴보자.

거사는 선유동의 승경에 대해 후인들이 혹 어둑하게 될까봐 염려하여, 돌아다녀야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그것을 표시하여 알릴 방도를 생각한 것은 기이한 일이라 일컬을 것이며, 벗나무껍질로 만든 관은, 또한 기이한 복식이라 할 일컬을 것이다. 한스러운 것은 내가 기이한 문장을 아직 쓸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高巒[34] 李典翰[35] 汝受[36] 栗谷李校理[37]叔獻[38]에게 소개하여, 한 마디 말을 발휘해주기를 청하니, 두 學士가 흔쾌히 만나 그와 즐겁게 말했다. 거사는 삼베옷에 옥을 품고[39], 의기 만만하여 돌아갔다.(?) 이에 처음과 끝을 서술하여 다른 날 서로 만나는 사람으로하여금, 문득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자한다.[40]

송인이 이녕을 지목하여 “처음과 끝을 서술하여 다른 날 서로 만나는 사람으로하여금, 비범한

32) 短褐: 기장을 짧게 만든 옷, 가난한 사람이 입는 옷.
33) 人言居士勞, 我謂居士逸. 耕鑿本分外, 無脅肩屈膝.
人言居士苦, 我謂居士樂. 曲肱不皺眉, 放歌天地廓.
人言居士悁, 我謂居士勤. 能爲勝區計, 重趼來求文.
人言居士老, 我謂居士少. 着意覓樺冠, 要得山妻笑.
34) 高巒: 李山海의 號의 하나인 듯함.
35) 典翰: 弘文館에 소속된 종3품의 관직.
36) 汝受: 李山海의 字.
37) 校理: 弘文館의 정5품, 또는 校書館, 承文院의 종 5품 벼슬.
38) 叔獻: 李珥의 字.
39) 懷玉于褐: 아름다운 자질을 품는 것을 비유함. 『老子』十七. 是以聖人, 被褐懷.
40) 宋寅, 앞의 글. 居士恐仙遊之勝, 後人或昧焉, 惓惓然不憚其跋涉, 圖所以表章之者, 可謂奇事, 而樺皮冠, 亦可謂奇服矣. 所恨, 余未有奇文以發揮之耳. 因介于高巒李典翰汝受・栗谷李校理叔獻, 請發一語, 兩學士欣接而樂道之. 居士懷玉于褐, 意滿而歸. 玆叙首末, 使他日相遇者, 便知爲非凡人也.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자한다.”고 할 만큼, 그는 당시 주목받는 특이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그 사실을 제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하는 의도에서 그 전기를 남긴 것이다. 송인은 이녕의 톡특한 인품을 자신의 문장력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 당대 명사중에 李山海와 李珥에 부탁했으며, 그들은 그 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이녕은 咸平李氏로 알려졌으며 선유팔경은 이황이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41] 그러나 앞에서 송인의 기록을 통해 그가 慶州李氏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宋寅의 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仙遊八景을 李寧이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또 그는 후세사람들이 선유팔경을 잘 모를까 염려하여 표시를 해 놓았다는 점이다. 仙遊八景 이른바 七松亭八景을 구체적으로 들어본다. 이황과 성운의 시를 통해 선유팔경의 구체적인 명칭을 소개한다.[42]

제 1경 松亭待月 송정에서 달기다리기: 松亭은 지금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송정마을(송면교회가 있는 자리)

제 2경 門巖修契 문암에서 수계하기: 門巖은 지금 충북 괴산군 청천면 명암리(울바위) 청천자연학습원 근처로 추정한다.

제 3경 華陽賞春 화양동에서 봄 즐기기: 華陽은 지금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일대로 추정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인지는 확인할수 없다.

제 4경 葩串尋僧 파곶사로 중을 찾아가기: 葩串은 지금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안에 있던 절이다. 지금 화양구곡중 제곡 파곶근처에 있던 절로 추정된다.

제 5경 沙坪牧牛 사평에서 소 기르기: 沙坪은 지금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평리이다.(牛腹洞은 十勝地)

제 6경 仙洞訪鶴 선유동에서 학 찾기: 仙洞은 지금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4리

제 7경 花山採藥 화산에서 약초캐기: 花山은 지금 경북 상주시 화북면 화산리

제 8경 岐灘釣魚 기탄에서 낚시하기: 岐灘은 지금 충북 괴산군 청천면 芝村里로 추정한다.

이황은 「仙遊洞 八詠」이라 했으며, 성운은 이녕을 추앙부각하는 뜻에서인지 「七松亭八詠」이라 했다.

이녕이 당시 서울의 명사들에게 인정받는 비범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이만헌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찍이 한 번 서울에 들어갔는데, 벼슬한 여러 선생들이 東閣을 열고 그를 환영하여 맞이했는데, 栗谷 李公, 白麓 辛公, 鵝溪 李公등이 모두 시를 지어 주었다. 宋頤菴寅이 傳을 지어 그 平生을 서술하고, 五言六篇을 덧붙였다. 형용이 簡靜하고 자득의 정취가 있어(?), 大官들이 직무에 관한 일로 붙잡아두려 하고자 하였으나, 드디어 알리지도 않고 피해버렸다. [43]

이 글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대관들이 이녕을 직무에 관한 일로 붙잡아 두려고 했다는 부분이

---

41) 김종륜,『槐山郡誌』, 1969, 463~464. “이조초기에 巨儒 退溪 李滉이 七松亭(현 松面里 松亭部落)에 있는 咸平李氏家를 尋訪次 왔다가 근방의 산수가 절묘하고 풍광이 明媚함을 못내 사랑하여 逍遙 逗留하기 구개월에 이르렀으며 이 가경은 가히 신선이 하강하여 노닐던 곳이라 하여 仙遊洞門을 비롯하여 구곡의 이름을 지어 刻字케 하였으나 …” 라고 하였다. 괴산향토사연구회,『괴산지명지』, 1997. 541~542쪽. 삼송4리 선유동 9곡에 대한 설명에, 위의 내용을 일부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꾸어 옮겨 놓았다.

42) 선유팔경에 나오는 지명중에 門巖・沙坪・花山・岐灘의 지금의 행정구역 주소에 대해서는 2001년 5월 22일 청천면 삼송리에 거주하는 박온섭 전 충북도의원께 전화로 여쭤어 보았다.

43) 李萬憲, 앞의 글. 嘗一入都中, 薦紳諸先生開東閣, 迎禮之, 有若栗谷李公・白麓(辛應時 1532~1585-인용자 주)辛公・鵝溪李公皆作詩以贈. 宋頤菴寅, 爲作傳, 叙其平生, 副以五言六篇. 形容簡靜, 自得之趣, 有大官欲縻以職事, 遂不告而遁.

다. 이만헌이 자기와 같은 경주이씨라서 미화했을 가능성이 얼마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인물이 출중하지 않고서야 서울의 저명인사들이 그렇게 환대하고 배려했겠는가.

이만헌의 글을 더 살펴보자.

成大谷 健叔과 더불어 막역하게 사귀었는데, 좋은 날씨에 아름다운 경치가 되면, 혹 徒步로 가서 방문하여도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았다. 庚午間(1570년)에 丹陽과 淸風 兩郡의 山水에 놀러갔다가, 竹嶺을 넘어 禮安으로 내려가서 陶山精舍에서 退溪先生을 배알했다. 선생은 자리를 마련해주고 회포를 펼치며 대접하고, 仙遊八景을 지어 노래했다. 작별에 임하여 다음과 같은 古詩八句를 주었다.

仙洞居士攜一笻, 선유동거사 지팡이 하나 짚고,
月嶽龜潭訪陶翁.[44] 月嶽山과 龜潭峰을 거쳐 陶翁을 찾아 왔네.
自云走遍諸名山,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 명산 둘러보고,
明朝笑入淸凉[45]中. 내일 아침에 웃으며 청량산으로 들어가리라 하네.
歸來別我不作留, 돌아갈 때 나와 이별하는데 머믈지 않고,
飄若一片空雲浮. 표연히 저 허공에 떠가는 한 조각 구름이로다.
聊相(和:小山公文集-인용자주)八詠贈子去, 애오라지 팔영시 읊어 떠나는 그대에게 주니,
好遂(逐:小山公文集-인용자주)洞仙遺處遊. 선유동 신선의 뒤를 따라 노는 것을 좋아하도다.[46]

이넝은 성운과 막역하게 지냈으며 좋은 날에는 도보로 거사 어울렸다. 참고로 말하면 이때 성운은 지금의 충북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에 은거하고 있었다. 이넝은 이황과도 친분이 있었다. 이넝은 이황을 배알했다. 위의 인용문에서 말한 시는 이황의「贈李居士」[47]이다. 「贈李居士」제2수 3,4구에 “애오라지 팔영시 읊어 떠나는 그대에게 주니, 선유동 신선의 뒤를 따라 그 노는 것을 좋아하도다.(聊和八詠贈子去, 好逐洞仙遺處遊.)라 했다. 「仙遊洞 八詠」도 이때 지어 준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이황의 환대와 예우가 이넝의 인간상을 대변해주는 한 척도가 된다. 이 점을 박지화는 갈파했다. 朴枝華의 앞에서 든 시 제 4수를 보자.

七松儘自高, 일곱 그루 소나무 모두 다 높다란데,
佳名誰與道. 아름다운 이름 누구와 더불어 말할고?
退溪一言重, 退溪의 한 마디 말이 소중하니,
千山欲傾倒. 모든 산들이 기울어지려고 하네.
今傷兩楹眞, 지금 두 기둥이 진짜로 손상돼가도,
酒絮[48]溪可芼. 술과 안주 대강 챙겨 시내가에서 풀 뜯네.

---

44) 선유동에서 월악산(月岳山)과 귀담(龜潭)을 거쳐 도옹(陶翁), 즉 이황(李 滉)을 찾아왔다는 뜻.
45) 淸凉: 淸凉山을 가리킴. 경부 봉하군 면호면 남쪽에 있는 산. 870미터. 仙鶴峰, 신선이 내려와 바둑을 두었다는 神仙臺, 선녀가 가무를 즐겼다는 仙女峰, 최치원이 수도한 孤雲臺와 讀書臺가 있다.
46) 이만헌, 위의 글. 與成大谷健叔爲莫逆交, 佳辰美景, 或徒步往訪, 而不以爲勞. 庚午間, 往遊丹淸兩郡山水, 踰竹嶺下禮安, 謁退溪先生於陶山精舍. 先生賜坐開懷而待, 爲賦仙遊八景. 臨別贈古詩八句曰

仙洞居士携一笻, 月岳龜潭訪陶翁. 自云走遍諸名山, 明朝笑入淸凉中. 歸來別我不作留, 飄若一片空雲浮. 聊和八詠贈子去, 好逐洞仙遊處遊.
47)『退溪集』에「贈李居士」란 제목으로 실려있다.
48) 酒絮(酒絮): 後漢의 徐穉가 닭 한 마리와 솜에 술을 적셔가지고 친구의 묘에 가서 곡하고 제

이녕은 일곱그루의 소나무가 들러싸인 집에 살고 있다. 그 소나무가 높다. 그의 인품의 높이와 같은 것이다. 소나무는 십장생의 하나이다. 仙界에 등장하는 나무중의 하나이다. 아름다운 그의 명성 그 누구와 말하겠는가. 퇴계가 그에게 두 편의 시를 지어 예우한 것만으로도 더 이상 찬미할 말이 필요없는 것이다. 모두 그 평가에 수긍하는 것이다. 이녕이 물질에 집착없이 자연과 더불어 천심을 가지고 신선처럼 살았다.

이녕에 대한 당시 세간의 관심도는 이만헌의 글에서 또 확인할 수 있다.

거사는 이미 일세의 청아한 이름을 얻었으며, 또 여러 원로들의 천거와 기림(獎飾)을 입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사귀기를 원했는데, 命을 받들고이 읍을 지나가는 사람은 그 집에 나아가보지 않음이 없으니, 청주에 이르러 이녕을 만나보지 못하면 두루 여행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데까지 이르렀다.[49]

이녕은 청아한 명성을 얻어 당시 원로인사들의 장려와 천거와 기림을 받았다. 청주에 와서 이녕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다 한다.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디가서 누구 모르면 간첩이라 하듯이, 청주에 와서 이녕을 못 보면 수준있는 사람 축에 들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듯 당시에 이녕과의 대면여부로 그 사람의 인물됨을 평가할 정도였던 것이다.

이녕과 교유인물들을 연장자순으로 정리한다. 成運(1497～1579)·李滉(1501～1570)·朴枝華(1513～1592)·宋寅(1516～1584)·辛應時(1532～1585)·李珥(1536～1584)등이다. 거의 모두 당대 학계 정계의 거물들이다. 이들이 이녕을 환대하고 예우해준 이유는 이녕의 청아한 기풍과 고고한 절의가 高人逸士의 指南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청주지역에 이녕과 같은 인물은 있는가. 아니면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녕의 고결한 인품과 청빈한 생활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냈다는 사실이다.

손이 오면 귀천을 막론하고 길게 읍하고는 절하지 않았으며, 韻人佳士를 보면 옛날 얘기와 지금 얘기를 펴늘어놓고 水石에 논평을 하면 벌떼가 일어나는 것처럼 호응하는데 끝이 없었다. 때로 구름머리떡(雲頭餠)을 내어 차와 술와 대신했다. 대개 메밀을 가루내어 떡을 만들어 崖蜜을 뿌려 둥글게 만드니, 일어났다가 엎드리는 기세가 산꼭대기에서 구름이 나오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그 모양을 취하여 그것에 이름을 창조해 붙인 것이다. 손이 비록 지위가 귀하고 높아 粱肉[50]을 싫어하는 사람이라하더라도 그 진솔함을 좋아하고 그 이름을 좋아하여 반드시 한 접시를 모두 비워 배부르게 먹었다. [51]

이글을 통해 이녕의 대인관계의 태도를 알 수 있다. 그는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揖을 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예를 갖추었던 인물이다. 과례나 아부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녕은 청빈한

사를 마치고는 姓名을 고하지도 않고 가버렸다는 고사. 술과 안주를 아껴서 마시고 먹는 것을 비유함.

49) 이만헌, 앞의 글. 居士旣負一世淸名, 又被諸老之獎飾. 由是, 人人皆有願交之, 奉命而行過是邑者, 莫不造其廬, 而至以到淸州, 不見李寧, 貽笑於周行焉.

50) 粱肉: 맛있는 쌀로 밥을 하고 고기를 먹어 부귀를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

51) 이만헌, 위의 글. 客至, 不論貴賤, 長揖不拜, 見韻人佳士, 揚扢古今, 平章水石, 蜂起響應, 而不可窮時, 進雲頭餠以替茶酒. 盖屑蕎麥, 作(餺)飥, 灑以崖蜜, 而團圓, 起伏之勢, 有類出岫之雲. 故取其象而創名之也. 客雖位貴顯, 而厭粱肉者, 樂眞率而愛其名, 必盡一盌而致果然矣.

생활을 하는 가운데 빈객이 찾아오면 최소한 접대의 예를 갖추기 위해 자기 형편에 맞게 음식을 만들었다. 즉 메밀가루로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그 표면에 꿀을 바른 떡을 대접했다. 이름하여 “구름머리떡(雲頭餠)”이다. 이는 이넝의 청빈하며 초속적인 삶과 인간적이며 자연친화적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 창작해낸 걸작이다. 이넝의 청빈하고 초속적인 생활이 새로운 떡을 창조해내게 된 동기가 됐다. 나는 이넝의 그 정신과 인품을 추앙하고 찬양하는 의미에서 이떡의 이름을 인간신선의 떡 ‘이넝의 떡’이라 명명한다. 나는 이떡을 복원제조하여 선유동을 내방하는 문화관광객에게 선유동의 특산품 별미로 소개하고자 한다. 그를 청빈함과 예절의식과 창조정신을 널리 확산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색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넝의 가계와 생애 교유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쉬운 점은 그의 학문의 수준과 문학의 수준을 고찰할 수 있는 그의 친필유고와 교유인사들의 친필자료들을 아직 찾아내지 못한 점이다.

4. 맺음말

지금 괴산군 仙遊洞에 仙遊八景을 설정한 사람은 李寧이다. 앞에서 논한 그의 가계와 생애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겠다. 姓名은 李寧(穎), 字는 領之(寧之)이다. 본관은 慶州이며, 尙書公派(翮)후손으로 보인다. 1514년에 출생하여 1570년이후 어느 시기에 졸했다. 號는 騎牛子, 또 樺冠翁이라고도 불렀다. 또한 七松居士, 仙遊居士 로 칭했다. 그는 고결하고 초세고답적 인품과 청빈 검약하며 인간미 넘치는 생활 자세로 말미암아 당대 저명인사들의 知遇를 받은 것은 물론 세인의 주목을 끌던 高人逸士였다. 그는 산자수명한 신선경같은 선유동에서 신선처럼 살다간 선취적 隱士였다.

선유동의 전설적인 인물 이넝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제나마 수집한 자료를 통해 그의 신상정보에 대해 상당부분 정리하였다. 일개 布衣寒士였던 이넝의 신상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밝힐 수 있었던 것은 그와 친분있던 저명인사들이 그에 대해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의 사적이 밝혀지게 된 사실과 관련하여 이만헌의 글은 시사하는 바 크다.

비록 그러나 은거하고 고답한 것이 오래지나서 돌아오지 않으나, 처음에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니, 이 옹의 기상을 보건데 또한 어찌 자신이 죽은 후의 이름에 급급했겠는가? 정말 堙沒되어 들려지게 되지 않더라도 이에 그의 병이 되지 않으니, 陶山의 三台星과 北斗星같은 문장에 입입어 하늘과 땅(穹壤)과 더불어 함께 썩지 않으니, 즉 옛의 사람에 미치지 못한다 할 수 없으니, 또한 반드시 공의 행운이 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52]

우리는 이넝의 삶의 자세를 통해, 부귀공명을 누린 고관대작이 아니라도 고결한 인품과 학식을 구비하면 존경과 추앙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넝의 고결한 삶의 자취를 찬양하고 후세에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로 삼기 위해 그 행적을 기술한 선인들의 투철한 기록정신을 확인했다. 또 사람의 됨됨이를 중심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선인들의 인간평가의 한 기준을 인지했다. 이런 풍토와 의식은 우리시대에 본받아 실천할 만한 미덕이다. 이넝의 사적을 기록한 사람들은 사람이 가야할 올바른 길 참된 길을 제시해준 것이다.『中庸』에 “숨겨져 있는 것보다

52) 李萬憲, 위의 글. 雖然, 隱居高蹈, 長往不返, 初非爲名, 而觀此翁氣像, 亦豈汲汲於身後之名者? 正爾, 堙沒無聞, 迺不爲渠之病, 而賴陶山星斗之文章, 與穹壤, 而同不朽, 則不可謂不及於古之人, 亦未必不爲翁之幸也.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으며, 작은 것보다 더 잘 내보여지는 것이 없다(莫現乎隱, 莫顯乎微)"라 했다. 보옥은 갑속에 들어있어도 언제나 찬연히 그 빛을 발하게 된다. 玉은 돌에 섞여있어도 玉이요. 돌은 玉에 섞여있어도 돌이다. 金은 똥통에 넣어도 金이지만, 똥은 金桶에 넣어도 똥이다. 같은 내용을 표현한 것이지만, 전자는 우아하고 고상한 표현의 실례요, 후자는 저속하고 천박한 표현의 실례이다.

산수의 외양적 아름다움만 보고 산수가 내포한 정신을 보지 못한다면 산수문화관광이 아니다. 선유동에 와서 선유동의 신선경에만 도취된다면 선유동을 반쪽만 본 것이다. 신선처럼 살다간 신선같은 사람(類仙之人) 이녕의 삶을 관조하지 못한다면, 문화의 세기에 문화적 식견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혹평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선유동에 와서 '신선의 떡, 이녕의 떡' 하나를 맛보며, 이녕의 초세고답적이며 선취적인 삶의 향기를 음미해보자. 그러면 그대도 신선이 되어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선유동과 관련하여 이녕의 행적이 드러난 만큼, 그를 능가하는 인물의 출현을 촉구하고 기원하는 의미에서 선유동근처에 그의 遺墟碑나 추모비를 세워 그의 고결한 인품과 생애를 기려야 할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 언급하지않았지만 선유동은 東皐 李浚慶의 후손이 살았다. 이준경은 임진왜란의 발발을 예견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인물을 선발할 수 있는 고도의 식견을 구비한 인물이었다. 그에 대한 비도 세울 필요가 있다. 다름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견지명의 중요성을 고취 앙양하기 위해서이다.

참고문헌

朴枝華,『守庵遺稿』, 한국문집총간 34, 민족문화추진회.
成　運,『大谷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28, 민족문화추진회.
宋　寅,『頤庵集』,한국문집총간 36책, 민족문화추진회.
柳成龍,「終天永慕錄」,『古文書集成』18, 下回豊山柳氏編(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李萬憲,『小山公文集』編輯者 李芯榮, 1922년.
李山海,『鵝溪遺稿』, 한국문집총간 47, 민족문화추진회.
李　楨,『龜巖先生文集・續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李　滉,『퇴계집』, 한국문집총간 29~30, 민족문화추진회.
『慶州李氏派譜』. 1922. 1956년.
『慶州李氏尙書公世譜』, 1999년.
김종륜,『槐山郡誌』, 1969.
괴산향토사연구회,『괴산지명지』, 1997.
李相周,「九曲詩의　傳統과　華陽九曲詩」,『敎育科學硏究』제13집,　청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9.
李相周,「葛隱九曲과葛隱九曲詩」,『한문학보』2집, 우리한문학회, 2000.
李相周,「盧性度와 烟霞九曲歌」,『한문학보』4집, 우리한문학회, 2001.
李相周,「盧性度와 烟霞九曲歌」,『괴향문화』9집, 괴산향토사연구회, 2001.